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 금조 이야기



국립극단

\* 이 공연은 (재)국립극단 '창작공감: 작가'를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2021년 8월 28일 낭독회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2년 3월 30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 2021 [창작공감: 작가]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주요연혁
2021	01-03		공모 및 작가 선정
	04	09	오리엔테이션
	04-01		정기모임: 스터디 및 워크숍
			스터디 포스트 휴머니즘 장애 담론을 경유하여 동물권 동시대성, 동시대인
			워크숍 움직임 이윤정 안무가 텍스트의 시각화 김형연 조명·공간 디자이너 고정관념 교정연습 권김현영 여성학자 최신 희곡 경향 이단비 번역가·드라마투르그 인터뷰 기법 은유 작가 음악과 연극 장영규 음악감독
2022	08	27-29	1차 낭독회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09-11		의견수렴 및 퇴고, 2022년 제작공연 연출가 합류
	12	14-18	2차 낭독회 @국립극단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	03-05		제작공연 @백성희장민호극장 희곡집 출간

국립극단 금조 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 일시

2022. 3. 30(수) ~ 4. 10(일)

##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 제작

(재)국립극단



02 운영위원의 글

---

04 줄거리

---

05 작가의 글

---

07 연출의 글

---

08 출연진

---

12 스태프 프로필

14 연습 스케치

---

16 작품이해돕기1

---

18 작품이해돕기2

---

21 만드는 사람들

---

23 (재)국립극단

## 전쟁, 그 ‘부자연스러운 행보’를 거슬러 나아가는 인간과 들개의 동행

전영지 [창작공감: 작가] 운영위원, 드라마터그

여기, 한국전쟁 발발 7개월 후 전쟁통에 잃어버린 딸을 찾아 길을 나선 ‘엄마’ 금조가 있다. 전쟁이 났다는 소리에 메밀밭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지만, 딸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다. 그러니까 - 딸의 생사는 분명치 않지만 - 이를테면 ‘자식을 앞세운 부모’ 금조는 이 어긋난 순서를 돌이켜보려고 길을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을 ‘부모’를 잃고 ‘들개’처럼 떠돌던 아무르가 함께 한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금조와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 아무르의 동행이 빚어내는 지난한 여정이 바로 <금조 이야기>인 것이다.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 부르지만, ‘자식 잃은 부모’는 부를 말조차 없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은 형언할 수 없어 그 어떤 단어도 그/그녀/그들의 상실을 담을 수 없다고 여긴 터일까, 적지 않은 언어들 이 그런 단어를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아주 예외적인 언어로 언급되는 것이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경전의 언어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against a natural order)’이라는 뜻의 ‘빌로마(vilomah)’라는 단어로 ‘자식 잃은 부모’가 경험하는 지독한 격동을 신의 시선으로 헤아린다. 그렇다. 자식을 잃는다는 건 한 세계의 자연적 질서 자체가 전복되는 것일 터, 딸을 찾는 금조의 여정은 ‘자연의 질서(natural order)’로 다시 돌아가는 길인 셈이다.

전쟁 때문이었다. 금조가 딸을 잃은 것도, 아무르가 부모를 잃은 것도 타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로 점철되었던 근대의 기획 때문이었다. 인간과 동물, 자연 모두를 포함한 타자의 가치를 위계화하여 어떤 면에서



든 미개(未開)하다 판단되면 가차 없이 개조·정화·재배치하고, 그 모든 '자연'의 변형과 파괴를 선진(先進)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오인해온 인간의 역사 때문이었다. <금조 이야기>가 그려내는 '전쟁'은 이처럼 누구는 '인류세'라, 누구는 '자본세'라 부르는 이 시대, '끝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의 명령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종이 인간·비인간·비생물 타자들에게 가했던 일련의 '부자연스러운 행보'를 담아낸다.

지금의 우리는 그 '부자연스러운 행보'에서 온전히 빗겨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그 길에 서 있거나, 그 길에서 내려왔으나 어떤 방향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지 고민하는 중이라면, <금조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자연의 질서'로 되돌아가기 위한 금조와 아무르의 동행 속에서 우리의 지금을 찾지 못할 까닭이 없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이 포착하는 동시대적 사유와 감각은 언뜻 먼 길을 천천히 에두르는 듯하지만, 이처럼 통렬하다.

## 줄거리 synopsis

1950년 6월 28일.

그날도 금조는 주인집 메밀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메밀밭은 드넓었지만, 금조가 키우는 메밀밭엔 메밀꽃도, 메밀도 자라지 않았다.

해가 정오를 막 지날 무렵, 금조는 세상을 꾸려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철렁. 금조는 두고 온 어린 딸을 찾으러 주인 집을 향해 내달렸지만 이미 모두 피난을 떠난 뒤였다. 침묵.

해가 지도록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마을을 뒤지며 딸을 찾아 헤맨 금조는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울린 뒤에야 작은 보따리를 챙겨 피난을 떠나야 했다.

금조 이야기는 그로부터 7개월 뒤, 1951년 1월에 시작된다.

전쟁의 갓길을 훑어가고, 뚫고 나아가는 금조(그들)의 피난 여정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On June 28, 1950, as on any other day, Geum-jo was working in the landlord's buckwheat field. Though the field was vast, Geum-jo had failed to grow any buckwheat flowers or buckwheat. Just after midday sun passed, Geum-jo caught the sight of a crowd of people travelling down the road and carrying their belongings. Her heart sank. She ran back to the landlord's house to find her daughter, only to find that everyone had left already. Silence.

As the sun went down, more and more people evacuated, but Geum-jo frantically searched the village for her daughter. Only after a gunshot rang nearby did she pack up a small bundle and took off.

The story of Geum-jo begins seven months later in January, 1951. Along and through the edges of the war, where will the evacuation journey take her?



### 작 김도영

해연 작가, 해를 작가와 함께 보낸 1년이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창작 공감 작가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한 달에 두어 번씩 워크숍을 핑계(?)삼아 늘 셋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보고 있으면 정말 수달을 연상케 하는 해를과 스스로를 청개구리 같다며 구박하는 해연. 서로 다른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만난, 진실로 멋진 만남이었다.

“정말 고마워.”

워크숍을 통해 토론하고, 익히고, 무언가를 함께 읽어나가며 끊임없이 작가의 삶과 태도에 관해 생각하였다. 언제나 이 한 번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내가 어떤 작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생각하였다. 잘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다.

하지만 작은 소신을 만들어 본다.

“고정관념을 답습하는 글쓰기는 하지 말자.”



1차 낭독과 2차 낭독을 거치며 두 번의 다른 배우들을 만났다. 짧게 연습하고 단숨에 읽어 끝냈지만 기억은 오래 간다. 내 마음대로 하는 상상이지만, 낭독을 함께 한 많은 분들이 작품 속 작가의 길을 응원해 주셨다. 금조 이야기는 글로써 단단해진 것이 아니다. 이 불완전한 희곡을 글쓰는 본인보다도 더 아껴준 사람들의 노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만 금조 이야기는 특별히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주고받는 질문들과 대화들, 서서히 살아나는 할자들을 보며 1년간 움켜쥐고 있던 희곡과 한 장, 한 장 작별했다.

이따금 사람들이 묻는다.

“전쟁 관련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뱉긴 하지만, 늘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잠긴다. 스스로 궁색한 답변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젠가 오려나...

창작 공감 작가에 지원했을 때에, 본래 생각했던 작품은 <금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작은 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전쟁을 배경 삼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022년 현재의 이야기이다. 모든 게 책을 통해 바라보던 과거와 닮아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전쟁 이야기의 목적은...

No War Please

<금조 이야기>의 막이 오르는 순간엔 멈추고, 회복이 길이 논의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 연출 신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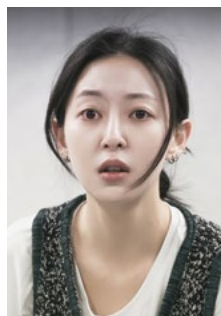
작가라는 존재에 대해 늘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을 이기는 것은 글이라고, 결국 A4용지에 써내려간 만큼 인식은 나아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희망이 싹틀 때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김도영 작가가 있습니다. 비판의 끝,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이면이구나 싶다가도 어느새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긍정과 부정은 그저 나의 감각에서만 유효하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고도 태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으로 도약하는 비극을 더듬다가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를 세상을 만납니다.

은근슬쩍 자리 잡더니, 프로덕션의 가장 큰 프로듀서로 오미크론이 있었습니다. 어디쯤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될까요. 금조를 통한 인연에, 그 시간에. 금조를 궁금해하는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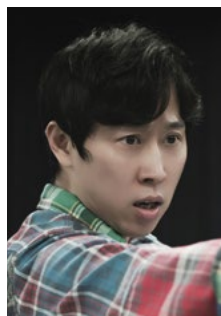
**금조 | 윤현길** Yoon Hyun Gil

**연극** <추락 II> <밤에 먹는 무화과> <말들의 무덤>  
<애들러와 깃> <과학하는 마음 -숲의심연> <서안화차>  
<모래의 여자> <산악기상관측>  
<조각난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 외



**아무르 | 이은지** Lee Eun ji

**연극**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고비도시>  
<죽고 싶지 않아> <성스러운게임> <어느 가을 배우들의 일상>  
<La nuit du geste festival> <마임 듣다, 그리고 마임 보다> 외



**노구치, 시신을 끌고 가는 남자 | 윤성원** Yun Seong Won

**연극** <산책하는 침략자> <템플> <1인용 식탁> <헤카베>  
<여전사의 섬> <대한민국 난투극> <어딘가에, 어떤 사람>  
<네버 더 시너> <행복한 날들> <손> <용의자 X의 헌신>  
<국화꽃향기> <쉬어 매드니스> 외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빨래> <스페셜 딜리버리> <햄릿:  
얼라이브> <안녕! 유에프오> <살리에르> <싱글즈> <어쌔신>  
<번지점프를 하다> 외



## 모리타 | 박세정 Park Se Jung

연극 <래러미 프로젝트> <천만 개의 도시>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오피스>  
 <정조와 햄릿> <갈매기> <나선은하> 외



## 정무 총감, 들개 | 박용수 Park Yong soo

연극 <리어왕>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고도를 기다리며>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사라지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산소> 외

수상 2005 제31회 영화연극상  
 2011 제32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2 제48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 역무원, 미야키 순사 | 이동준 Lee Dong Jun

연극 <고역> <몽양1919> <준대로 받은대로> <아버지>  
 <리어왕> <노래하는 사일록> <고곤의 선물>  
 <흥가에 별들어라> <미룡> <라이방>  
 <말괄량이 길들이기> 외

뮤지컬 <광주> <야조> <지하철1호선> <우리동네>  
 <만화방 미숙이> <슈샤인 보이>

국악극 <화룡지몽> <태평서곡>



## 시인1, 말, 들개, 물이꾼2 | 문예주 Moon Ye Joo

연극 <로드킬 인 더 씨어터> <SWEAT 스위트> <X의 비극>  
<스카팡> <화전가> <보이 갯츠 걸> <맘모스 해동>  
<당통의 죽음> <꿈속의 꿈> 외



## 시인2, 피난민 남편 | 윤일식 Yun Il Sik

연극 <배를 엮다> <시간의 난극> <궁전의 여인들>  
<비온새 라이브> <오늘은 모든 희망을> <이랑>  
<머리를 내어놓아라> <환장지경> <의자들> <달빛> 외



## 가정부, 여인1, 래빗1 | 박옥출 Park Ock Chool

연극 <심청전을 짓다> <시간의 난극> <비온새 라이브> <키스>  
<꽃가마> <전화벨이 울린다> <갈매기B>  
<숙영낭자전을 읽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외  
뮤지컬 <블루사이공> <들풀> 외



## 피난민 아내, 여인2, 래빗2 | 이혜미 Lee Hye Mi

연극 <벚나무 동산> <보이책> <휴먼 코메디> <장님들>  
<wit&beat> <전기수> <선녀씨 이야기> <동물 없는 연극>  
<결혼> <한여름 밤의 꿈> <태풍> 외



### 주인여자, 여인3, 래빗3, 들개 | 강해진 Kang Hae Jin

연극 <내 일의 내일, 내일의 내 일> <서교동에서 죽다>  
<와이바이> <프로메테우스의 간> <아버지들>  
<한여름 밤의 꿈> <스카팽> <뼈의 기행> <록앤롤>  
<오슬로> <성> <선을 넘는 자들> <유리디스> 외



### 소녀, 소년병2 | 김주빈 Kim Ju Been

연극 <나, 해석> <물고기 인간> <극장 앞 독립군>  
<친구를 만들고 죽이는 방법> <크리스토퍼 논란클럽>  
<오래된 믿음> <거인이 걸어오고> <그리우다>

가족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템페스트>



### 소년병1, 개구리, 곰, 물이꾼1 | 남재국 Nam Jae Kook

연극 <용종절제술> <비온새 라이브>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귀쫄긋 소셜클럽> <안녕, 광명> 외

## 스태프 프로필

<b>작</b>	<b>연극</b>	<신신방> <낙지가 온다> <알마게스트>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붉은 낙엽> <왕서개 이야기> <수정의 밤> <아룩과 루시> <무순6년> 외
<b>김도영</b> Kim Do Young	<b>수상</b>	2020년 동아연극상 희곡상 <왕서개 이야기>

<b>연출</b>	<b>연극</b>	
<b>신재훈</b> Shin Jae Hoon	<b>작·연출</b>	<비극을 찾는 무대> <시간의 난곡> <머리를 내어놓아라> <빨강의 보색은 녹색> <정서진 별곡>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b>연출</b>	<오셀로와 이아고> <오피스> <오늘은 모든 희망을> <한발이 남았다>

<b>무대</b>	<b>연극</b>	<그때도 오늘> <럼스> <완벽한 타인> <템플> <태양> <시련> <인간이든 신이든> <조치원 해문이>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X의 비극> <팜> <나는 광주에 없었다>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체액> <새들의 무덤> <템페스트> <레드 올랜더스> <인정투쟁> <명왕성에서> <그을린 사랑> <진실X거짓> <시간의 난곡> <날 보러와요> <키스> <애국가> <공포> 외
-----------	-----------	--

<b>조명</b>	<b>연극</b>	<죽음의 집> <아들> <왕서개 이야기>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비온새 라이브> <요정의 왕> 외
<b>노명준</b> Noh Myung-jun	<b>뮤지컬</b>	<M> <아일랜드> <Anne> <템페스트> 외

<b>의상</b>	<b>연극</b>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슈미> <달콤한 노래> <환향> <시간의 난곡> <오피스> <모던걸타임즈> <테라피>
<b>이윤진</b> Lee Yunjin	<b>뮤지컬</b>	<앨리스 스튜디오> <라스 올라스>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b>드라마</b>	<복수가 돌아왔다>

**소품****남해연**

Nam Hea Yeon

**연극****소품****분장****영화****시각예술**

<X의 비극> <온, 오프라인 발전기> <3인 3색 이야기 시즌3> <꽃잎>  
 <망각이 진화를 결정한다> <고야> <1인무대-2>  
 <온, 오프라인 발전기> <1인무대> <시>  
 <플라스틱 앙상블> <아버지>  
 <오염된 허> <현자의 돌> <출발 상봉>  
 <배고픈 자는 껍쇠로 보낸다> <동굴의 밤이> <똥강아지>  
 <Fried A Night>

**분장****장경숙**

Jang Kyoung Suk

**연극**

<탈피> <조치원 새가 이르는 곳> <붉은 낙엽> <로테르담>  
 <바바리맨-킬라이크아이두>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집집:하우스 소나타> <터키행진곡> 외

**움직임****이재영**

Lee Jae Young

**연극**

<뽕이요 뽕>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인간이든 신이든> <시련>  
 <내 일의 내일, 내일의 내 일> <FARM>

**무용**

<파나마 PRISMA 페스티벌>  
 <벨기에 브뤼셀 VARIA 극장 초청 공연>  
 <러시아 생트페테부르크 OPEN LOOK 페스티벌>  
 <영국 더플 레이스 A FESTIVAL OF KOREAN DANCE 2021>  
 수상 2015년 스페인 국제 안무대회 MASDANZA20 "BEST PERFORMER" award  
 2018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단체상

**음악·음향****이승호**

Lee Seung Ho

**연극**

<내부자 거래> <#야옹> <유리동물원> <덤 웨이터>  
 <마우스피스> <아트> <시간의 난곡> <모토타운> <킬로로지>  
 <뼈의 기행> <시련> <진실X거짓> <쥐가 된 사나이>  
 <일종의 알래스카> 외

**수상**

2021 제8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무대예술상

**영상****김성하**

Kim Sungha

**연극**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아몬드> <꿈이 아닌 연극>  
 <철가방 추적작전> <덤 웨이터> 외

**조연출****손청강**

Son Cheong-Gang

**연극**

<마리를 위한 아주 사소한 결정> <이상한 코로나라의 앨리스>  
 <우리가 슬픈 건> <정신승리> 외

**뮤지컬**

<샘골강습소 최선생> <술루우수우> 외



## 연습 스케치





# 금 조 를 따 라 걷 기

“얼굴과 머리, 온몸에 총탄을 맞은 어린 군인들은 제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소년·소녀지원병 군번과 계급이 있는 만 17세 이하의 정규 군인과 비정규 학도병을 통칭 (소년병) 하여 아우르는 말. 한국전쟁 당시 약 3만 명이 소년병으로 활동했고, 그 중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0년에야 비로소 소년병의 병적을 인정했다.

“구걸하지 않는 거야. 양키놈들도 Marian Mo 한테는 함부로 못 덤비거든.”

Marian Mo 시인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엔 친일을, 해방 이후엔 반공 모운숙 을 부르짖으며 전국구 국회의원까지 올랐다. 1948년 제3차 UN총회에 (1910~1990) 장면 등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가했으며, 사망 후에는 대한민국 금관문 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양키 군인들하고 활보하질 않나… 몸을 죽어라고 사려도 모자랄 판에, 혼자 어디 천국에 있는 사람마냥 웃고, 떠들고, 마시고…”

낙랑클럽 1951년 이승만에 의해 지시되고, 모운숙이 만든 비밀 단체. 약 100여 명의 여성들이 활동했으며 모두 영어 능통자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면상으로는 외국인 대상 사교 클럽이었지만 유사 매춘 단체의 성격을 띠었고 로비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조사 보고서엔 낙랑클럽을 호스티스 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만약 거기에 뭔가를 적어서 네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어마어마한 포상이 있을걸.”

8240부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미 극동사령부는 연락파견대로서 8240 작전명 ‘래빗’ 부대를 창설했다. 1948년부터 대북첩보활동을 벌여왔던 KLO(Korea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부대도 이때 8240부대에 통합되었다. 특성상 계급도, 군번도 없던 이 부대의 약 20%는 여성이었으며, ‘래빗’으로 칭해지던 여성부대원들은 공작과 첩보 수집, 교란, 적군 식량 위치 파악 등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맡았다. 래빗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는 자의도 있었지만, 성폭행과 같은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쫓아갔던 여성도 있었던 것이 증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봐, 단 몇 년 만에 이 쓸모없는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공공재가 생산되고 있는지.”

**수력발전소** 일제에 의한 한반도 수력발전소 건설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집중되었다. 압록강 유역의 발전소 건설을 주도한 모리타 카즈오카(森田一雄)와 그의 대학 동기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는 압록강의 지류인 부전강과 장진강을 막아 대규모의 전력을 생산했다.

“기습공격이라고, 기습, 그것도 미국놈들이 우글거리는 진주만을 상대로 파바박.”

**진주만 공습**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을 선제 공격한 사건. 중일전쟁을 이어가던 일본은 자금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막아버린 미국을 공습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중립을 깨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진주만 공습을 기점으로 중일전쟁은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었다.

“해수구제가 해를 끼치는 동물을 죽이는 건데,  
우리 아무르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해수구제 사업** 일제강점기, 사람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짐승 사살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 해수구제 사업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제법 팽팽하다. 산짐승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실제로 많았으며 해수구제 사업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줄었다는 입장과, 해수구제 사업을 시베리아호랑이와 아무르 표범 등 한반도의 대형 포식 동물 말살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 불타는 숲과 전쟁의 얼굴들

## 금조 이야기

양근애 연극평론가,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금조 이야기>는 한국전쟁기 피난통에 딸을 잃어버린 ‘금조’가 딸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전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 극은 금조를 표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금조의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크고 오래된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그 세계는 식민지기와 해방, 한국전쟁에 이르는 선형적인 역사를 레일로 놓고 달리는 기차와도 같다. 속도도 방향도 없이 영원히 달리는 기차 안에는 멈춰버린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얼굴들이 있다. 금조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 자다. 그 알아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른 채, 떠나온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자다.

### 잠복과 출현의 시간

<금조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흐르는 시간과 그 시간 바깥의 상흔이 공존하고 있다. 역사적 시간은 국제 정세와 전시 체제의 변화로 가늠되지만, 전쟁으로 인한 도처의 죽음과 숨거나 떠나거나, 또는 숨을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도록 만든다. 흡사 불타는 숲을 두고 그 숲에 불을 지른 자와 삶의 터전이었던 숲을 잃어버린 자, 숲에 숨어든 자, 숲에서 다른 존재를 발견한 자들이 뒤섞여 있는 형국이다.

이 연극은 메밀밭에서 피난 행렬을 바라보는 금조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전쟁이 가장 중요한 극의 시간성을 담지하지만, 정작 극이 진행되면 전쟁이라는 거대 서사는 후경화된다. 이 연극에서 다루고 있는 실제 역사적 사건은 그 자체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큼 크고 두텁다. 가령 매리언 모라는 이름으로 낙랑클럽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윤숙의 이야기라든가, 이기봉의 아내로 이승만 정권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박마리아 이야기, 식민지시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일제의 북공남농 정책에 힘을 실었던 모리타 카즈오카와 노구치 준의 이야기, 8240부대의 비밀공작 여성첩보원의 이야기, 러셀 중령의 유모차 공수 작전, 맥아더 장군의 해임 연설 등 이 극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깊이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금조 이야기>에서 이 사건들은 극의 중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마리언 모’를 초콜릿 이름으로 생각한 것처럼, 피난민의 경로를 따라가다가 우연히 첩보원들을 만나 ‘래빗’으로 활동한 것처럼, 중심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금조를 비롯한 개인의 얼굴을 통해 들여다본다.

모리타와 함께 수력발전소에서 살았던 아무르 표범이 피난길의 금조 곁에 있는 바로 그 들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이 조선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수력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개마고원 숲을 불태울 때, 아무르 표범은 부모를 잃었다. 표범이 들개가 되는 시간은 한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잇는 시간이 된다. 전쟁 전에 일어난 이 시간은 마치 메밀 씨앗처럼 잠복해 있다가 전쟁 이후의 시간에 불쑥 출현하여 금조의 시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마침내 금조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갈 때,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태는 해석의 차원을 벗어나 하나이면서 전부인 세계를 가리킨다.

## 동물-되기 혹은 비인간의 공존

역사를 다루는 연극에서 공식 역사보다 권력에 희생된 개인이나 기록된 역사에서 빗겨나간 인물을 조명하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런데 <금조 이야기>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그 질문은 ‘동물-되기’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떨칠 수 없는 전쟁의 얼굴을 하고 있다.

숲에서 만난 ‘죽은 친구를 끌고 다니는 남자’가 전쟁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살육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 대사를 곱씹어보면,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인한 폭력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 너를 해하는 일이 다 전쟁에 속할 수 있다. 주인여자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반지와 기차표를 훔쳐 달아난 가정부와 그 가정부의 행색을 보고 올라미를 씌우는 역무원, 그 역무원을 때려죽이는 시인, 피난을 포기하고 남아 있는 산속의 민간인을 죽이는 군인, 첩보원을 물어 죽이는 고아들, 생존 본능으로 영선의 죽음을 방기한 금조의 모습 등이 다 전쟁과 다름 아니다. 특히 딸을 잃은 이야기가 되었다가 아무르 표범의 이야기로 변주되는 신발장수 이야기는 전쟁의 얼굴을 한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환기시킨다. 달려오는 기차의 빛을 마주보고 서서 “아무르, 오이데”를 외치는 시인의 말은 숲을 잃어버리고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사냥 본능을 살인무기로 쓰다가 결국 이름도 본능도 잃어버리고 마는 들개의 운명과 전쟁을 같은 자리에 놓는다. 인간을 압도하는 속도와 광음을 자랑하는 기차가 근대의 충격과 불평등의 침략을 상징했던 것처럼, 전쟁의 얼굴을 한 기계들과 그 기계를 사용하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근현대사의 비극을 낳았다.

<금조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국가 폭력의 재생산으로 조명되던 전쟁의 서사를 비인간의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시야를 넓힌다. 근대적 침략 전쟁을 위해 수많은 자연이 훼손되고 짓밟혔지만, 발전소를 짓기 위해 불타 없어진 숲과 해수구제 사업으로 도살당한 동물들의 비극은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극에 등장하는 표범(들개), 개구리, 말, 메밀 씨앗이 든 화분 등은 도구화되지 않고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간의 행동과 관계 맺음으로써 상황을 구성해나간다. 최근 많은 연극에서 인간 바깥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의인화나 재현의 문법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비인간을 조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조 이야기>에서도 인간 중심적 사고를 성찰하고 특히 인간의,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곧잘 해석되었던 전쟁을 비인간 동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비인간 동물은 전쟁으로 인해 어딘가 상처를 입어 이 숲에 남겨졌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지 않다. 극이 진행될수록 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과 아무르라는 이름의 표범은 동굴에서 주먹밥을 싸는 여인들이나 이름도 없이 죽어간 소년군인들, 군번도 계급도 없이 래빗으로 은폐되어야 했던 여성 첩보원과 다름없는 존재로 부각 된다.

극의 후반부에는 금조가 러셀 중령에게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혼동하여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들개가 자신을 금조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위계를 해체하는 장면도 나온다. 극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금조’는 더 이상 단 하나의 존재에 붙이는 이름이 아니다. 메밀밭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금조는 들개가 된 표범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된다. 씨앗처럼 땅속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출현할 이 존재를 어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다만 환원적인 폭력, 반복되는 고통, 대체되는 상실의 자리가 또렷하다. 그저 자연이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역사 속에 있으나 역사보다 잠재적인 인간 이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될 뿐이다.

<금조 이야기>를 관통하는 감각은 ‘냄새’다. 딸의 체취가 묻은 옷을 들고 다니는 일이나, 숲이 구워지는 냄새 때문에 엄마와 관련된 냄새를 잊어버렸다는 표범의 말들, 주먹밥 냄새를 따라 들어간 동굴, 냄새로 아무르가 개가 아님을 간파하는 풀, 신발 속에 코를 박고 딸의 냄새를 찾는 일, 고기 냄새를 떠올리는 고아들, 없어진 수력발전소에서 화약 냄새를 기억하는 아무르, 그리고 피와 살로 얼룩진 죽음의 냄새들. 아이러니한 징조를 품고 있는 이 냄새들은 인간의 시야를 넘어 전쟁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금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야기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존재들의 삶과 죽음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놀랍고 때로 섬뜩하다.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가 전쟁과 폭력의 내력으로 쌓아 올린 역사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는 아직 전쟁 중이다.

※ 이 글은 2021년 2차 낭독회 관람 후 작성되어, 2022년 공연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만드는 사람들

### 출연

금조 윤현길

아무르 이은지

노구치, 시신을 끌고 가는 남자 윤성원

모리타 박세정

정무 총감, 들개 박용수

역무원, 미야키 순사 이동준

시인1, 말, 들개, 물이꾼2 문예주

시인2, 피난민 남편 윤일식

가정부, 여인1, 래빗1 박옥출

피난민 아내, 여인2, 래빗2 이혜미

주인여자, 여인3, 래빗3, 들개 강해진

소녀, 소년병2 김주빈

소년병1, 개구리, 곰, 물이꾼2 남재국

### 스태프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무대 남경식

조명 노명준

의상 이윤진

소품 남혜연

분장 장경숙

움직임 이재영

음악·음향 이승호

영상 김성하

조연출 손청강

무대감독 김정빈

무대제작감독 이승수

조명감독·오퍼레이터 김용주

음향감독·음향/영상오퍼레이터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박희민

무대진행 최성관 강수경

의상진행 심새늘 신은혜

분장진행 장경숙 박진경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대표 이윤중)

제작팀 정우상 이종민 김세진 정우근 이승용

차승호 정재현 김용선 남기상 정병문

작화팀 이남런 박윤경 박지원 신혜원 조정숙

의상제작 옷장(대표 이윤진)

이수진 이예원 배은창

소품제작 코스모스(대표 황효덕)

소품팀 박진경

조명프로그래머 서승희

조명팀 김병희 이혜지 김은빈 김휘수

음향팀 박상준

영상팀 박상준 정하윤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현아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황지연

홍보사진 만나 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공연영상 율하우스(대표 조선영)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봄봄(대표 김은총)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서성원)

홍보를 인쇄 인타임(대표 김종민)



티켓 **김보배**

매표 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송희**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하우스 안내원 **임지은 송 솔 김지수 고계령 박소담**

**손윤희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고혜진 김연정 김지이 윤예진**

**이지은 박주은 황지수**

프로그램북 디자인 **전안수**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대표 신동복)**

[창작공감: 작가] 운영위원 **전영지**

작품개발 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한나래**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이정민**

제작진행 **고예원**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인터넷/카메라  
앱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 재단법인 국립극단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 사무국장

오현실

### 경영관리팀

신민희 팀장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대외협력·평가

이민희 인사·제도개선·이사회

주현우 노무·구매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복무·복리후생

###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김수현 박소영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접근성매니저

### 홍보마케팅팀

박보영 팀장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홍보

이현아 이송이 변정원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온라인마케팅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한경 정진영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정광호 팀장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제작감독

윤성희 무대기계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의상감독

이영탁 서동민 청년인턴

### 작품개발팀

정용성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정보관리·창작극개발

이지연 아카이빙·작품개발 정보관리

김가은 청년인턴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작품개발

손준형 정한솔 연구개발·기관협력

박성연 공연제작·온라인콘텐츠

이송하 청년인턴

###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현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2022

국립극단  
공연안내

NTCK.OR.KR

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2.11.-2.13.

공동기획

백성희장민호극장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  
페레스트로िका

2.28.-3.27.

명동예술극장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밤의  
사막 너머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신애연 연출 동기향

금조 이야기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배해률 연출 이래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  
(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김미란

커뮤니티  
대소동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연출 이진열 구성 장영

소극장판-타지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강보름

제5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4.13.-4.17.

공동기획

명동예술극장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5.11.-6.5.

명동예술극장  
작-연출 전윤환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

5.19.-6.12.

소극장 판  
작 나수민 한현주 하선혜 연출 권영호

앨리스 인 베드

8.24.-9.18.

명동예술극장  
작 수진 손택 연출 이연주

스트레인지 뷰티

9.1.-9.18.

공동제작

소극장 판  
작 공동창작 연출 배요섭

채식주의자

9.2.-9.25.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한강 각색-연출 셀마 일루이

세인트 죠운

10.5.-10.30.

명동예술극장  
작 조지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11.2.-11.27.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작-연출 정진세

발가락 육상천재

11.3.-11.27.

소극장 판  
작 김연주 연출 서중식

스카펄

11.23.-12.25.

명동예술극장  
원작 물리에르 각색-연출 임도완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국립극단